

한미약품 오너일가 경영 전면 퇴진... '전문경영체제' 도입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롭게 재탄생”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할 것 강조
임종윤 ‘장남 일감몰아주기’ 의혹

경영권 분쟁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8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송영숙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일부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맺었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신 회장 12.43%, 송 회장 11.93%, 임 부회장 10.43% 등 34.79%다.

해당 주식매매계약으로 향후 신동국 회장 지분은 18.92%로 늘어나고, 송영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한미약품그룹

숙 회장의 지분은 6.16%로,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9.70%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신 회장의 지분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합산 지분(15.86%)보다 많아지는 가운데, 신 회장이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손을 잡으면서 세 사람의 우호 지분은 총 48.19%에 이르는 것

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숙 회장은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회장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미는 신 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함으로써 한미약품이 기업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 전문경영인은 경영을 맡고 동시에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영숙 회장은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송 회장은 “신 회장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던 지난 결정에도, 저와 임주현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번 결정에도, 모두 감사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동국 회장은 그동안 한미약

품그룹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등장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두 사람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이후 최근에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으로 돌아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향방을 바꿨다.

현재 송영숙 회장은 이번 발표 후 한미약품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명예 회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사내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과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갈등 봉합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이사진은 송영숙·신유철·김용덕·곽태선 등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모녀 측 4명과 임종윤·임종훈·권규찬·배보경·사봉관 등 형제 측 5명으로 구성됐다. 모녀 측이 의사결정 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

운 구조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 송영숙 회장과 신동국 회장은 과반수 확보에 주력, 추후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신동국 회장과 대화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해 임종윤 사내이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6월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목표했던 한미약품 대표이사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임종윤 사내이사는 ‘장남 일감몰아주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북경 한미약품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임종윤 사내이사가 실소유주인 홍콩 코리그룹 계열사 룬메이강에 넘겨 유통하게 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북경한미약품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통가, 경기침체·고물가에도 2분기 실적 ‘선방’... “안심하기 일러”

롯데쇼핑·이마트 등 전년비 소폭 증가
신세계·현대백,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
“3·4분기 경제 상황에 총력 대응 필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됐음에도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올해 2분기 실적은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닝서프라이즈까지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8일 유통업계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증권은 롯데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슈퍼와 롯데홈쇼핑 영업이익은 각각 80억원, 4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10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쇼핑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0.04% 오른 3조6235억원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515억원에서 715억원으로 3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마트와 롯데온 영업이익은 각각 20억, 19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전년 동기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세계는 2분기 1조6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54% 감소한 1353억원으로 추산됐다.

현대백화점은 9703억원에서 1조2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의 영업이익은

1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하고,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556억원에서 507억원으로 8.79% 줄어 들었다.

대형마트 중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마트도 적자폭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증권사 2곳의 컨센서스 집계 기준으로 작년보다 0.32% 감소한 7조2481억원으로 전망됐다. 영업손실은 작년 2분기 530억원에서 올해 327억원으로 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는 그간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유통업계의 이같은 호전된 실적은 기업들에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인터

뷰에서 “2분기는 대부분의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 덕에 최악의 성적표는 면했다. 하지만 3·4분기의 경제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추석, 연말행사 등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대 1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군과 생활품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장마철에 이어 폭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 생활품 분야를 중심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CJ올리브영 “전국 거점망으로 고객 편의 높일 것”

부산서 ‘도심형 물류 거점’ 본격 가동
300평 규모 하루 최대 6000건 처리
“주요 광역시·지방 중소도시 확대 목표”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달부터 ‘MFC해운대’를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MFC는 ‘도심형 물류 거점’을 의미하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약자다.

올리브영은 앞서 지난 6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MFC해운대를 마련하고, 시범 운영해 왔다. 올리브영이 서

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MFC를 부산 등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FC해운대는 약 300평 규모로, 부산 동부권에 해당하는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일대의 ‘오늘드림’ 배송을 맡고 있다. 인근 매장의 재고 보관 기능도 수행한다. 유통세일을 비롯해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시기에는 하루 최대 6000건에 달하는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에는 ‘MFC사상’을 열어 부산 서부권의 ‘오늘드림’ 물량 일부를 소화해 낼 계획이다.

MFC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오늘드

림’은 올리브영이 지난 2018년 말부터 선보이고 있는 배송 서비스다.

‘오늘드림’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 없이 주 7일 상시 이용 가능하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상품을 주문하면 ▲낮 12시~13시 ▲15시~16시 ▲22시~24시 자정 등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온라인몰 및 모바일 주문 상품을 당일 3시간 이내 배송함으로써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받고 싶다는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에는 ‘오늘드림’ 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주요 상권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매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리브영은 전국매장 고도화와 함께 MFC 확장을 통해 커머스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리브영은 도심형 물류 거점망(MFC 네트워크)을 주요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로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리브영은 오는 2025년까지 20개 이상의 MFC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체 온라인몰 주문의 절반 가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올리브영이 보유하고 있는 MFC는 총 12곳이다. 지난 2021년 ‘MFC강남’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문 가속화에



올리브영 MFC성남점에서 근무자가 ‘자동 분류기’로 분류된 상품을 검수하고 있다. /CJ올리브영

발맞춰 물류 시설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